손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The Experience of Paternity Fathers with Grandchildren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황 정 해*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Hwang, Jung-Hae

<Abstract>

Using ethnographic methods, this study identifies the meaning of paternal experiences through a series of individual one to two hour interviews with men who have grandchildren. The interviewees consisted of twelve fathers from fifty to seventy years of age and the middle SES clas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dult-children-marriage and parent transitions were found to be important changes for men on their father's perception of their role as a father. Second, fathers with grandchildren felt happiness due to their grandchildren and held grandchildren as being important. Third, protecting and supporting their families was the main focus of paternity. Forth, the period of paternal experiences with grandchildren can be called "the stage of strong grandfather identity" because men who have grandchildren put more importance in the relationship with grandchildren than do their own adult-children, and grandchildren themselves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male identity.

▲주요어(Key Words) : 손자녀(grandchildren), 부성경험(paternal experience), 아버지됨(fathering), 할아버지됨(grandfathering), 할아버지 정체감이 강한 시기(the stage of strong grandfathers' identity)

Ⅰ. 서 론

부모자녀관계는 개인의 일생을 통하여 한쪽의 죽음이 아니면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 중의 하나이며 또한 서로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관계일 것이다. 자녀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야 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역할들이 요구된다. 그러한 과정에는 부모자신들도 부모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세계가 있을 것이며 이는 부모로서의 만족감이나 어려움 등을 느끼게 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 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아버지로서 겪는 부성경험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부성이라 함은 아버지됨(fathering)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아버지로서 느끼는 심리적 특성이나 역할 그리고 실제 역할 수행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다.

아버지 역할에 대한 심리적 경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양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부모로서의 만족감이나 유능감을 조사하는 연구들(김희숙, 1996; 서혜영, 1999; 양미경, 1996; 조선화, 1998)이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김기현, 2002; 홍길회 · 황정해, 2006)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부모됨에서 다른 차원의 중요한 주제는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장변화에 따라 부모들도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자녀의 연령변화에 따라 아버지-자녀관계의 경험 내용이 달라지고(황정해 · 백경임, 2005), 자녀가 성장할수록 의존과 독립의 심리적인 균형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부모로서 성숙한 모습과 부모됨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 주 저 자 : 황정해 (E-mail : Junghaeh@yahoo.co.kr)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황정해,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성인기 이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가 초기 아동기나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 집중되어온 것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부모의 중요성으로 인해, 청소년기에는 자녀의 급격한 변화에 수반되는 부모자녀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모-성인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실 부족한 편이고 따라서 성인자녀를 둔 부모기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에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자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여 부모가 되는 과정을 거쳐 나가는 동안에도 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외국 문헌을 보면 엘렌 갈린스키(Ellen Galinsky, 1996)는 부모자녀관계의 마지막 관문을 '떠나보내기' 라고 명명하고 있다. 부모는 성장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 갖추어야 하는 역할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에 자랑스러움, 슬픔, 기쁨의 혼합된 감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부모기를 되돌아보면서 평가하고 자녀가 떠나감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부모들은 새로이 일어나는 상황 즉, 자녀의 결혼, 직업을 갖는 일, 또는 자녀의 출산 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고 적응해가면서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재정의하게 된다. 이 시기에 부모들은 '내가 점점 늙어가는 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계기는 자신의 부모의 죽음을 통해 다음 차례가 자기들임을 깨닫고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기의 과정을 전 인생주기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 Rossi(1987)에 의하면 예비단계, 도취단계, 부모역할의 완숙기를 거쳐 자녀가 성인으로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종결단계로 들어선다(고정자, 2006, 재인용)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연령변화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이나 특성들을 연구한 Canfield(1992)는 자녀의 연령을 영아기부터 손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아버지의 만족감과 효과적인 역할수행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관심을 받는 연구주제는 우리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들 상호간에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부모-자녀관계는 가족내의 핵심적인 관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전제하에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효나 부양차원의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김태현, 1995). 노인에게 있어서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배우자의 상실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는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최혜경, 1985), 또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이 성인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기가 늘어나므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노인의 삶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장선주, 1990)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관련된 연구들(김유경, 2000; 최정혜, 1991)이 실시되어왔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자의 견해로 성인자녀를 둔 부모들도 '부모'라는 정체감으로 자녀들에게 주체적인 존재로서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에서 겪는 심리적 경험세계가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자녀에게 어머니로서 행하는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손자녀에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맞벌이의 가족형태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조모의 손자녀 돌봄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인자녀들의 욕구에 의해 할머니들이 자신의 손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행해져 오고 있다. 예를들면 손자녀에게 미치는 조부모의 영향력이나(민하영 · 유안진 1996; 장희경 · 조병은, 1995; 황혜영, 2005), 조부모 역할이나 조모의 손자녀 돌봄과 관련된 연구들(김문정, 2006; 배경미, 1988; 서병선, 1995), 손자녀와의 친밀감을 조사하는 연구들(박의순 · 조병은, 1990; 서동인, 1991)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조부와 손자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사실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는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이 그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이나 영향력이 여성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견해와 현재 노년기에 접해 있는 남성들이 살아온 시대적인 가치관의 반영으로 인해 그들이 경험한 '가족생활'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덜 관심을 받아온 것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1990년 중반 이후에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인 IMF의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30, 40대가 중년기를 겪게 되는 과정들에서 그들에게 미치는 가족생활의 중요성은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예를들면, 중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이 그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나 가족의 중요성(김소영, 2000; 김영희, 2003; 한경혜 · 、송지은, 2001)이 밝혀져 남성의 정신건강에 가족생활의 중요성이 회자되고 있다. 본 연구자의 견해로 노년기에 접하는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남성의 노년기는 대부분이 노화로 인한 독특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중요한 변화로서 직업이나 주된 활동무대에서 은퇴함으로 인해 생활범위가 축소된다. 이로 인해 그들의 관심과 접촉영역이 가족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들에게 성인자녀와의 유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는 심리적 복지감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은퇴로 인해 새로운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남성에게 가족관계 속에서 부여되는 아버지, 할아버지 등의 지위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가정의 영역으로 시선을 돌리는 노년기의 남성에게 '아버지로서 살아온 의미나 가족의 의미'가 어떠한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졌다. 또한 남성의 할아버지됨이 그들의 성인기 발달에서 갖는 의미를 Erikson(1976)이 제시한 다음의 설명 즉, 할아버지가 되어 유년기의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경험이며 그것은 노년기와 유년기 사이에서 존재하는 유사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견해나, 노인들의 순진하고 솔직한 면들은 어린이 같은 면들이며 그러한 특성은 노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동안 성인으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잠시 숨겨두었던 즐거움, 순진함이나 놀라움, 재미를 손자녀와 함께 재경험할 수 있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견해(한성열, 2000, 재인용)를 통해 볼때 노년기 남성의 부성경험에 손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영역을 포함하여 노년기 남성의 부성경험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 경험내용들을 조사할 수 있는 인터뷰법을 통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여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자녀를 두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로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경험내용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노년기 남성의 삶의 만족도 평가에 '아버지로서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나아가서는 노년기 남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출산경험이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었다. 조사된 응답자는 모두 12명으로 그들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령분포는 50세에서 55세까지가 1명, 56세에서 60세까지가 7명, 61세에서 65세까지가 3명, 70세가 1명이었다. 직업은 개인업 2명, 회사원 1명, 공무원 1명, 전문직 1명, 농업 2명, 은퇴 5명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다양한 탐사질문이 가능한 인터뷰법을 이용하여 첫 자녀가 출산경험이 있는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성경험 내용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의 관점, 상식, 주관적 경험과 의미 등 연구대상의 경험세계와 의미세계를 중시하고 과학적 일반화 보다는 일상생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문화기술적 연구법(이희봉, 1998)에 근거를 두었다. 질문의 방향성은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을 통해 아버지로서 겪는 심리적 경험이 있을 것이며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의 심리적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연구를 시작하려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버지로서의 남성' 이라는 관점에서 아버지됨(fathering)을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남성의 부성경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면접과정과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접은 인사와 일상적인 이야기들 예를들어 날씨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아이들과 지내시는 일이 어떠세요?" 등의 친밀감을

<표 1> 첫 자녀가 출산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

이 름	아버지의 연령과 직업		자 녀	손자녀
김 영 수	58세	회사원	1남 1녀	첫아들 손자
김 우 철	61세	도자기공장	2남 1녀	첫아들 손자
박 수 영	70세	농 사	3남 2녀	모두 출가함→손자녀
박 수 철	56세	안과의사	2녀	첫딸 손녀
윤 수 영	62세	공무원	3녀 1남	외손녀 2명
이 철 우	58세	회사퇴직	2남 1녀	첫아들 손녀
이 상 우	58세	회사퇴직	1녀 3남	첫딸 손녀
남 진 우	59세	회사퇴직	2남	첫아들 손자
이 수 림	60세	회사퇴직	2남 2녀	손자녀
이 규 혁	59세	장 사	2남 1녀	첫아들 손자
지 남 수	53세	농 사	1녀 2남	첫딸 손녀
박 혁 규	63세	회사퇴직	2녀 1남	외손녀 2명

*사례명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주고 받은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life history)를 나누었다. 그 다음으로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심리적 경험과 변화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 - 자녀가 결혼을 할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첫 자녀가 아이를 낳았을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손자녀와 지내시는 것은 어떠세요?- 등을 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자녀의 성장 사건에 따른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인 특성이나 관계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다음으로 자신이 아버지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아버지로서 행복했던 순간이나 존재감이 들때나 힘들때 등을 질문하였다. 이는 노년기에 접해 있는 남성이 느끼는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보기 위함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응답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경로는 친구, 친척, 이웃의 소개, 놀이공원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아버지들과 그들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서울, 경기도(과천, 평촌), 경남(마산, 창원), 경북(경주)에 거주하는 아버지들이었다. 조사시기는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이다. 응답자와의 만남은 공원, 찻집, 응답자의 집, 직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허락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인터뷰가 끝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기록하였다. 출발부터 구조화된 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처음에 설정하였던 연구내용에 준하여 응답을 여러번 숙독하여 범주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생애사 자료분석방식을 4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는 Lieblish 등(1998)의 관점의 한 방식인 '범주적 내용분석(categorical content approach)'과 유사한 방식이다. 범주적 내용분석 방법이란 여러 개의 생애사로부터 공통된 테마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개별 생애사의 전체성은 훼손되지만 생애과정의 유형을 파악하고 다양한 유형과 사회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한경혜, 2004, 재인용). 이러한 분석방식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형성하였다. 첫째,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둘째, 손자녀에 대한 태도 셋째, 성인자녀들에 대한 태도 넷째, 자신의 아버지됨에 대한 회고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세한 분석방법은 심리적 특성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분리해 보는 작업을 하였고, 응답들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해 가면서 정리를 하였으며 분석틀에 대한 타당도는 전공자 2인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1) 양가감정을 부여하는 자녀의 결혼

아버지들이 자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양가적인 감정을 경험함을 보였다. 긍정적인 심리는 자녀를 성장시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게 한 것에 대한 뿌듯함,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고 인정해 주면서 잘 자란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대견함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심리는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 자녀의 결혼을 통한 자신의 나이듦에 대한 지각, 며느리를 보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부담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모든 감정들은 자녀의 결혼은 부모에게 그동안 부모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 부모역할에 대한 평가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부모로서의 짐을 내려놓음에서 오는 기쁨, 서운함, 특히 만족스러운 배우자와 결혼시키는 경우 자신의 부모역할 평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었다. 자녀의 결혼은 자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부모역할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며, 부모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의 동기 중에서 사회에서 성인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주위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입장이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된다는 차원(조주현, 1993)이 자녀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에서 갖는 태도 중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감정을 경험함을 보이고 있었다. 딸을 결혼시킬 때는 섭섭함이 아들보다 더 함을 표현하였다. 아들과 딸을 모두 결혼시킨 사례에서 보면 딸을 애지중지 키워 남의 집에 보내야 하는 것은 서운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딸을 보내면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는 것으로 자신의 서운함을 상쇄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주 만족하는 사위를 얻는 경우에는 딸을 시집보내는 서운함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딸을 결혼시키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결혼이데올로기의 가치가 자녀의 결혼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에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 "글쎄,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섭섭하기도 했고, '아들 녀석이 이젠 정말 어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김우철, 61세, 2남 1녀/ 첫아들 손자)

"원래 장가를 일찍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장가를 보내니까 장래도 걱정되고, 시원섭섭한 기분이었습니다."(이철우, 58세, 2남 1녀/ 첫아들 손녀)

"며느리를 얻는다는게 기뻤지만 많이 부담도 되었어요. 그리고 벌써 내 나이가 그렇게 되었나 싶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집에 들어오게 되니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더군요."(이상우, 58세, 1녀 3남/ 첫딸 손녀)

"큰 딸 시집보낼때는 그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는데 내려갈수록 서운하더군요. 근 30년 교육시켜서 좀 먼 곳에 출가를 시키니깐 더 그렇더군요."(윤수영, 62세, 3녀 1남/ 외손녀 2명)

"어제만 해도 애 같았는데 벌써 결혼했다는게 신기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더군요."(지남수, 53세, 1녀 2남/ 첫딸 손녀)

"난 좋았어요. 이제 커서 결혼을 하나보나 싶고, 사위와 딸이 먼저 선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우리도 좋고 해서 결혼을 승낙했어요. 우선은 본인이 선을 보고 좋다 하고 이후 결정은 우리가 했어요."(박수철, 56세, 2녀 / 첫딸 손녀)

"나는 육이오 때 첫 아들을 잃었고 그 다음으로 난 자식이 딸이었는데 딸을 결혼시킬려고 하니깐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로 시집을 보낸다는 생각에 결혼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깝지만 그래도 딸 자식은 원래 시집을 보내야 하는 거니깐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이고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눈물도 나고 뭐 그랬어요. 아들은 결혼시키면서 좋았지요. 지금까지 내가 아들한테 잘 해준 것도 없는데 훌륭하게 알아서 잘 커주고 또 이쁜 색시를 데리고 오니깐 좋았습니다. 보내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것이 있는게 세상살이 아닌가요?"(박수영, 70세, 3남 2녀/ 손자녀)

2) 아버지로서의 삶에 공감대를 부여하는 아들의 출산

아버지들은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대견함, 기쁨, 자랑스러움이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자녀 성별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위안과 자신의 아들도 또한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측은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녀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니 '이 애비 마음을 알겠지' 하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지고, '나 처럼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애처로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김영수, 58세, 1남 1녀/ 첫아들 손자)

"지금은 훌쩍 커서 아버지가 된 아들을 볼 때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지요."(김우철, 61세, 2남 1녀/ 첫아들 손자)

"손자가 태어나니까 '이제야 아들 녀석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쁘고 아들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잘 살아갈련지가 걱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들 녀석이 대견합니다."(이규혁, 59세, 2남 1녀/ 첫아들 손자)

"아들이 장가가서 자기 자식을 낳고 사는 것 보면 든든하고 이젠 내 할일 다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남진우, 59세, 2남/ 첫아들 손자)

"좋았지요.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인데 코 흘리던 자식들이 벌써 성인의 나이에 들어서서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다고 생각하면 뿌듯합니다."(이수림, 60세, 2남 2녀/ 손자녀)

3) 다른 집안에서 할 일을 해낸 것으로 다가오는 딸의 출산

아버지들은 딸의 출산에 대하여 기쁨을 느끼기는 하지만 다른 집안에 들어가서 '할 일을 했다' 는 생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딸은 시집을 가면 그 집안에서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는 가치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물론 아들을 낳아야만 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성별의 문제보다는 '출산 자체에 대한 의무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에겐 부모가 되는 동기 중에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요구 총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그들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로서의 임무를 마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딸이 시집을 가서 손자를 낳았는데 그때 '이제 그 집에서 할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한 시름 놓았어요."(박혁규, 63세, 2녀 1남/ 외손녀 2명)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남의 집에 가서 제 할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윤수영, 62세, 3녀 1남/ 외손녀 2명)

"한편으로는 이제껏 어깨에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이

슬슬 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이상우, 58세, 1녀 3남/ 첫딸 손녀)

2. 손자녀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응답자 중 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들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 보다 손자녀를 얻게 된 것이 더 좋다고 표현하였다. 손자녀를 통해 삶의 연속성을 느끼고, 손자녀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아이가 성장한 과정을 회상하며, 그 시절 가계부양의 의무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놓쳤던 상호작용의 경험과 애정표현을 손자녀를 통해 경험함을 보이고 있었다.

1) 할아버지로 인식되는 과정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지만 또한 자신이 '늙어간다거나 혹은 늙었다' 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사건으로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는 레빈슨(Levinson, 1976)이 제시한 노년의 전환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음(김애순, 2002; 재인용)을 언급한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즉, 할아버지라는 지위는 노년기 남성에게 자신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은 자신의 노인됨을 수용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과정으로 보여졌다.

"손자 녀석이 태어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내 손자가 태어났다는게 정말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젠 '정말 나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김우철, 61세, 2남 1녀/ 첫아들 손자)

" '내가 벌써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나이가 되었나?' 싶고,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이철우, 58세, 2남 1녀/ 첫아들 손녀)

"첫 아들을 얻었을 때와는 기분이 많이 틀렸어요. 첫 손자라 더 많이 애틋했고, 할아버지가 되었단 사실이 약간은 낯설었고, 늙어버렸다는 기분에 조금 쓸쓸했는데 지금은 자식들보다 손자 재롱이 더 좋습니다."(남진우, 59세, 2남/ 첫아들 손자)

" '나 자신이 벌써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뭔지 허전하면서도 기쁘고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윤수영, 62세, 3녀 1남/ 외손녀 2명)

"처음에는 '할아버지! 벌써 그럴 나이가 되었나' 하는 생각에 어색하기도 했지만 손녀에게는 아버지로서 느끼는 부담감 없이 마냥 좋아할 수 있고, 안아주기도 하고 자식들때 보다 애정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지남수, 53세, 1녀 2남/ 첫딸 손녀)

" '내가 벌써 할아버진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손녀를 보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내 자식을 얻었을 때 보다 기분은 더 좋습니다."(박혁규, 63세, 2녀 1남 / 외손녀 2명)

"첫 아이가 생겼을 때 보다 손자를 보았을때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이상우, 58세, 1녀 3남/ 첫딸 손녀)

"넘어갔어요. 기뻐서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딸이 친정에 와서 손녀를 낳았어요. 그 때 느낌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손녀 보다는 딸이 더 좋습니다."(박수철, 56세, 2녀/ 첫딸 손녀)

2) 초기 아버지됨을 재경험하게 하는 손자녀

노년기 남성이 성인자녀의 아버지이지만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손자녀를 보게 되는 남성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입장보다는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이 더 증가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자녀를 키울 때 지녔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없이 손자녀를 대할 수 있음으로써 손자녀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조부모의 역할에서 손자녀에게는 부모로서의 책임감 없이 사랑을 줄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유안진, 1980) 부분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손자를 보니 아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땐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아이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었는데, 손자 녀석을 보니 귀엽고 마냥 좋네요."(이규혁, 59세, 2남 1녀/ 첫아들 손자)

"손자 자라는 것을 보면 아들 클 때와 많이 닮아서 아들 어릴적이 떠올라 좋고, 아들이 손자하고 지내는 걸 보면서 나는 못해준 게 많아서 자식들한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손자 재롱을 보면 나는 애들이 어릴적에 돈 번다고 '저걸 못 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남진우, 59세, 2남/ 첫아들 손자)

"사실 아들 보다 손자를 보니깐 더 좋더라구요. 요즘은 그 녀석들 과자값 주는 재미로 살아요."(김영수, 58세, 1남

1녀/ 첫아들 손자)

3) 삶의 영속성을 제공하는 손자녀

노년기 남성에게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손자녀들을 돌보고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삶의 영속성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다. 이것은 Hagestard & Spreicher(1981)가 제시한 바 있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손자 증손자들이 한창기에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는 모습과 자기 자녀들이 믿음직한 성년이 되어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세대 삶의 유대를 젊은 부모들 보다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홍숙자. 1999; 재인용)는 부분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심리는 에릭슨(Erikson, 1976)이 노년기의 발달과제로 제시한 외부세계와 자신 내면에 있는 결함들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의 근원들과 화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자아통정감을 경험하는데 손자녀의 의미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가장 큰 특징은 자녀에게 삶의 연속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다 보니 함께 할 시간이 줄어들지만 그래도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든든함을 느끼고 내 삶은 이제 기울어지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지만 자식도 있고 손자 녀석도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뒤를 이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감을 얻게 됩니다."(김우철, 61세, 2남 1녀/ 첫아들 손자)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내 손주들 역시 지쳐가는 내 삶에 활력소가 될 정도로 이쁘고 귀엽습니다."(박혁규, 63세, 2녀 1남/ 외손녀 2명)

"세상에 손주를 안고 있으면 그 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보다도 더 기분이 좋은 일이며 인생 이치이고 행복입니다."(박수영, 70세, 3남 2녀/ 손자녀)

"우리 손주도 부모를 닮아서 아주 똘망한게 깨물어 주고 싶어요. 이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식의 자식들에 의해 다시 만들어져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인생의 큰 포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이수림, 60세, 2남 2녀/ 손자녀)

3. 성인자녀에 대한 태도

1)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

노년기에 접어든 남성이 가족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자녀의 의논상대가 되지 못하거나, 자녀들이 어머니와 의논하고 자신은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녀에게 서운한 것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뒤돌아 볼 때 자식에게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받은 경험을 회상하기도 하면서 자녀들이 자신의 품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성장한 자녀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노부모가 심리적 복지감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간의 만족스런 관계이며, 자녀와의 대화나 애정적인 상호작용이 만족감 수준을 높이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는 연구(Quin, 1983)와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노모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자녀와의 관계 질이며, 여자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주관적인 결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연구들(박경란, 1988; 박충선, 1990)이 있는데 반해 노년기 남성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근거로 볼때 남성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가족관계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모든 일을 안사람과 의논할 때 아버지로서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박혁규, 63세, 2녀 1남/ 외손녀 2명)

"아이들이 나를 외면하고 어머니와 크고 작은 일을 먼저 상의하고 결정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가장 소외감를 느꼈습니다."(이상우, 58세, 2남 1녀/ 첫아들 손녀)

"아들놈이 중학교 다닐 때 쯤 내가 술을 많이 마시고 동네 밖에서 비틀거리고 걷고 있었는데 아들놈이 와서는 날 업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 이후로는 술만 마시면 항상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날이 되어도 아이들이 바빠서 못 오곤 합니다. 그때가 가장 서운하고, 물론 아들 녀석이 바쁜 줄 알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은 안 그래요. 밥 한끼라도 직접 먹이고 싶고 자주 보고 싶어요. 그런 것 아니면 자식들에게 서운한 점은 없습니다."(남진우, 59세, 2남/ 첫아들 손자)

2)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되는 자녀들

노년기에 해당하는 남성이 아버지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데 성인 자녀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의미와 잣대가 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자신 인생의 성공여부를 갸름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여졌고 응답자 대부분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낳아 키운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에릭슨(Erikson, 1976)이 제시한 노년기의 발달과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자아통정감에 성인기 자녀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더 자세히 규명해 보아야 하겠으나 본 조사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성인 자녀의 삶의 모습이 노년기 남성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통정감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점은 인생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윤수영, 62세, 3녀 1남/ 외손녀 2명)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전에 무엇을 했는가 보다는 이젠 아들 녀석이 무엇을 하고 있고,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식 잘 둔 사람이 한 턱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이철우, 58세, 2남 1녀/ 첫아들 손녀)

"아들이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고 자기 밥벌이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면 뿌듯해요. 내가 아버지로서 크게 잘해 준 것은 없어도 이 만큼 공부시키고 자기 할 일을 하게 해준 것을 보면 내 인생도 그렇게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김영수, 58세, 1남 1녀/ 첫아들 손자)

"우리 삼남매 모두 아무 탈 없이 자라줘서 고맙고 다들 좋은 짝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면 든든합니다. 내 할 일을 다한 기분도 들고 이젠 바라는 게 있다면 각자 아무 탈 없이 살아주는 바램뿐입니다." (박혁규, 63세, 2녀 1남/ 외손녀 2명)

"사실 난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나 자신 밖에 몰랐었어요. 하지만 태어난 자식으로 인해 내 삶의 가치는 위대해졌고 또 책임의 무게도 더 주어졌습니다. 나 자신은 초라하기 그지 없지만 자식 만큼은 나 보다는 더 나은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아이를 통해서 완성되는 느낌을 받았어요."(이수림, 60세, 2남 2녀/ 손자녀)

4. 자신의 아버지됨(fathering)에 대한 회고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일에 대한 질문을 하니 응답자 대부분이 현재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자신들이 아버지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회상이나 경험담에 대한 것을 대답하였다. 이는 자녀를 결혼시키고 손자녀를 두는 조부모의 입장이 되면 실제 아버지로서 행해야 하는 어떤 역할이나 부담감보다는 아버지로서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회상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아버지로서 존재감을 느끼거나 행복했던 순간들 혹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잘해주지 못한 점들에 대한 회상을 통한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1) 아버지로서의 존재감과 행복감

본 조사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가정에서 아버지가 존재감을 느낄 때는 자녀들에게 베풀수 있을 때이며, 자녀에게 애정을 느낄 때, 자녀가 자신을 필요로 하고 의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묻고 수용할 때,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사건들 예를들면 학교 입학, 결혼 등의 전이과정에서 자신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담당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부모들이 성인자녀관계에서 받는 입장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입장일 때 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자존감이 높게 나타나며 또한 노인의 의존성과 그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간에 주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역할전환(reversal of role)가 일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서병숙, 1996), 노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태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행복감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김유경, 2000)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로서 어떤 존재감이나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월급을 타서 그 돈으로 아이들의 학비나 용돈을 줄 때, 퇴근하고 나서 집에 오면 반겨주는 아이들을 볼 때, 군대에 간 아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 사위를 처음 보던 날, 딸의 혼수를 위해 모아두었던 통장을 꺼내던 날, 아들 학비를 주는 경우들이었던 같습니다." (윤수영, 62세, 3녀 1남/ 외손녀 2명)

"자식을 결혼시킬때가 아버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결혼에 어머니 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자식의 앞날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싶었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박혁규, 63세, 2녀 1남/ 외손녀 2명)

"나의 자식들을 보면서 그들이 날 필요로 하고 나에게 의지할 때 가장 아버지로서 나의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때 아버지로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를들면,

아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나에게 의논할 때나 사소한 것들에서도 나의 조언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사랑해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우, 58세, 2남 1녀/ 첫아들 손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주위 환경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신뢰하면서 하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성숙시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주어서 고맙고, 그런대로 만족스러워요. 이제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고 나와 같은 입장이 되니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해나갈거라고 믿고 있습니다."(윤수영, 62세, 3녀 1남/ 외손녀 2명)

2) 가계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의미

노년기 남성이 회고한 아버지됨에서 남성이 아버지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에서 가장 부각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이나 꿈의 실현보다는 생계유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지 못할 때 아버지로서 가장 힘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녀로 인해 자신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예전에 20대 후반 쯤에 막연히 사업을 해 보고 싶었어요. 비료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더군요. 그래서 계속 농사를 지었어요."(박수영, 70세, 3남 2녀/ 손자녀)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을 시키지 못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로서 부담감도 느끼지만 또한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힘 같은 것도 생깁니다."(김영수, 58세, 1남 1녀/ 첫아들 손자)

"아이들에게 남들이 하는 만큼 용돈을 주지 못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남수, 53세, 1녀 2남/ 첫딸 손녀)

"아이를 키우면서 직업생활에서 모든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자연히 일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 58세, 1녀 3남/ 첫딸 손녀)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느낀게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다른 일에 뛰어들 수도 없고 하기 싫다고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겠구나. 어쨌든 이 일에 매달려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고 이 곳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마음의 동요 없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윤수영, 62세, 3녀 1남/ 외손녀 2명)

Ⅳ. 논 의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논의해 보고, 첫 자녀가 출산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의 부성경험 내용의 특성을 명명해보고자 한다.

1. 성인자녀의 중요한 삶의 전이과정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첫째,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아버지들의 심리적인 경험은 긍정적인 심리와 부정적인 심리를 함께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심리 경험내용은 자신의 부모역할을 잘 완수했다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과 뿌듯함, 자녀에 대한 대견함이었고 부정적인 심리 경험내용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에서 오는 서운함과 자신이 나이 들어간다는 서글픔이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함으로써 자녀의 결혼과 출산은 부모의 의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밝힐 수 있었다. 특히 자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남으로써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성인자녀의 삶의 전이과정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결혼이나 출산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늙음'에 대한 서글픔을 인식하게 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동일한 연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중요한 요인이 되어 자각나이에 영향을 미친다(김애순, 2002)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특히 늙는다는 것에 대한 심리는 '서글픔'으로 인식되었는데 중년이후의 사람들에게 나이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나이들어감' 과는 다른 차원으로 젊은이들은 나이들어가는 것을 성숙해지고, 인간적으로 더 원만해

지고, 책임감이 강해지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노년기의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 등의 의미가 더 강해진다(이선자, 1989)는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결국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중년기 이후에는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점차 자신도 노인이 되어간다는 생각으로 서글픔과 인생을 정리한다는 것에서 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손자녀의 의미와 중요성

첫째, 남성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손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계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손자녀와의 경험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즉, 자신의 자녀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산물이며 위로가 되어주고, 자신이 가계부양으로 인해 놓쳐버린 자녀와의 어린시절의 상호작용에 대한 보상이며, 부모로서의 부담감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행복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나이듦을 인식하게 하는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빅토르 위고가 언급했던 '할아버지가 되는 예술은 노년의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처세술을 가르치는 과정이며 할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영혼과 함께 노년의 우울한 걱정을 떨쳐버리고 보다 높은 차원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김선형, 2005, 재인용)는 것과 같은 경험으로 보여졌다.

둘째, 조부모와 손자녀의 상호작용이 서로에게 중요하고 의미있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손자녀의 입장은 조사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문헌들을 고찰해 보면 손자녀들에게 미치는 조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관점은 일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들면, Kornhaber(1985)는 손자녀의 측면에서 조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손자녀의 전생애 단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손자녀에게 노년기에 닥치는 사회심리적 긴장을 미리 접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Antononovsky(1986)는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는 가족원들을 결속시키고 가족역사의 계승을 용이하게 하며 가족에의 소속감을 강하게 해 주어 가족원들의 정체감에 긍정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가족문화에 강한 소속감과 결속력,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로의 영속감을 주게 되어 개인들의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모든 면의 복지와 관련을 갖는다(서동인, 1991, 재인용)는 견해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할머니는 무릎학교를 담당하는 존재로서 손주들에게 사랑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간주되고 자신도 또한 며느리에게 자신의 집안권력을 이양하고 난 뒤에 오는 허탈감과 무력감을 손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해소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손자녀와 할머니 양쪽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의미있는 활동임(유안진, 1980)을 언급한 부분이 뒷받침을 해주는 근거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관점들의 대부분이 조모와 손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들이긴 하지만 조부모와 손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들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손자녀가 노년기에 접해 있는 남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자녀들은 자신의 아이들과 경험하지 못한 애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때론 자신의 아이를 낳았을 때 보다 더 기쁘고 행복감을 주는 원천이 된다. 결국 인간발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손자녀와 할아버지의 상호작용은 그들 모두에게 필요한 관계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가계를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나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음으로써 인생의 의미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Judson, 1985), 그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노년기의 고독이나 소외감을 벗어날 수 있다(김명순, 2000)는 결과들을 뒷받침 해주는 부분에서 노년기 남성의 할아버지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부성경험에서 가계부양의 책임과 의미

노년기에 접해 있는 남성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것은 가족을 위해 가계부양의 의무를 잘 수행한 것에 대한 만족감과 부족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자신들에게 의지해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부담감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자신에게 의지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느낌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감과 성취감,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남성의 부성정체감에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가계를 부양하는 책임감은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이는 현재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서운함이 성인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부분과 자녀들이 자신을 대화나, 의논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것을 볼때 남성의 부성정체감의 속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살아온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접어든 남성이 아버지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었다. 노년기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과 작은 위안에 행복해 하는 순간들이 많았다고 지각하고 있었고, 현재 자녀들이 자신의 일상에 바빠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

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지만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는 궁극적으로 자식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고, 자녀들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고, 자녀의 삶에 개입할 수 있고, 자녀들이 의논해 오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고 싶어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4.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기 남성의 아버지됨 특성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에서 노년기 남성의 부성경험에서 현재 아버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아버지로서 살아온 과거의 삶과 현재 할아버지로서의 경험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부족하나마 생애과정적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생애과정 관점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개인의 일생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과정을 개인시간, 가족시간, 그리고 역사적 시간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의 시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개념화하여 접근하는 이론적 관점이다(한경혜, 2004). 본 연구에서 조사된 응답자들의 연령이 아버지로서 살아온 시대는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남성은 직장생활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며, 가계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이 강력한 시기였으며, 또한 오늘날 이상적인 아버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녀와 친구같은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았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계를 부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책임을 위하여 젊은 시절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친밀감과 애정표현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보낸 대상들이다. 즉 자녀의 어린시절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자녀와 애정적, 정서적 경험을 많이 놓친 분들이었다. 이러한 자신의 아버지로서의 삶에 대한 아쉬움은 현재 자신의 손자녀를 통해 경험하지 못한 자녀와의 친밀한 정서적인 감정과 활동들을 보상받고 회복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의 응답자 중 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들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손자녀를 얻게 된 것이 더 좋다고 표현하였으며 손자녀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아이가 성장한 과정을 회상하며, 그 시절 가계부양의 의무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놓쳤던 상호작용의 경험과 애정표현을 손자녀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행복감을 많이 표현하고 있었다. 물론 부모역할보다는 조부모역할에 적응이 더 수월하다(서병숙, 1996)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지만 본 연구를 실시할 시기에 노년기에 접해 있었던 우리나라의 남성에게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보다 다른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노년기 남성의 할아버지됨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할아버지 정체감이 강한 시기'로 명명되는 노년기 남성의 아버지됨 특성

손자녀가 있는 남성의 부성경험의 특성을 할아버지로서의 정체감이 강한 아버지기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거는 첫째,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갖게 됨에 따라 본인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에서 풀려남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아버지로서의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이 손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많이 언급하였고 성인자녀들과의 관계보다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기쁨과 행복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자녀를 현재 자신에게 의미가 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부모들도 변화하고 성장발달해간다는 엘렌갈린스키(Ellen Galinsky)의 연구(1996)를 근거로 하여 손자녀를 둔 우리나라 남성들이 자녀를 출가시키고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의미성을 파악해 보려는 의도에서 다양한 탐사질문이 가능한 개별적인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는 질적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자녀의 결혼에 대한 아버지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긍정적인 내용은 자신의 아버지 역할을 잘 완수했다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과 뿌듯함, 자녀에 대한 대견함이며 부정적인 내용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에서 오는 서운함과 자신이 나이들어간다는 서글픔이었다.

둘째, 자녀의 출산에 대한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줄어든 것에 대한 홀가분함과 기쁨이었으며 이는 자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들의 경우는 자기와 같은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측은함과 아버지로서 살아온 삶에 대한 이해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딸에 대한 마음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할 일을 했다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셋째, 손자녀와의 관계에서 노년기 남성들은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어색함과 늙음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손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뿌듯함, 행복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손자녀는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존재로 그려졌고 특히 자녀에게 가졌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없이 손자녀를 대함으로써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자신의 아버지됨(fathering)에 대한 회고에서 보면 자녀들에게 베풀수 있을 때 아버지로서 존재감을 느끼고,

생계유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가족을 돌본 것을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자식에게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 받는 관계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자녀들에게 의논상대나 대화상대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서운함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다섯째. 위의 특성들을 근거로 할 때 손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을 '할아버지 정체감이 강한 시기' 라고 명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노년기 남성의 삶에서 손자녀와의 관계 경험이 그들의 삶에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는 자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노년기 남성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둘째, 노년기 남성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남성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근거가 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인터뷰법에 의한 연구방법의 한계점으로 C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례연구들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거나 과장함으로써'(허미화, 1997, 재인용) 해석상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며, 기존의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노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도구적, 경제적 부양보다 성인자녀의 애정적, 정서적 자원과 가치관 차원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들(장선주, 1989; 최정혜, 1991)이 제시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성인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그들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추후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의 제한점이었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오늘날 손자녀에 미치는 조부모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나 손자녀들이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에 따라 노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박영숙, 1998; 이선자, 1989)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조모와 손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중심이었다.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정생활에서 조모의 역할이 많이 행해지고 강조되어 오게 됨으로써 점차 남자노인은 가정 내에서 소외를 경험할 수도 있다(황철수, 2004; 犹野千壽, 1999)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인 손자녀를 둔 남성에게 '할아버지란 정체감'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노년기 삶을 이해하는데 할아버지됨(grandfathering)에 대한 연구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예를들면, 노년기 남성이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 복지감에 손자녀와의 관계나 존재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거나 현재 가족관계에서 전통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서 등장하는 할아버지의 다른 이미지 모색이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본 기초연구를 토대로 하여 노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를 고려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접 수 일 : 2007년 05월 15일
□ 심 사 일 : 2007년 05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7월 04일

【참 고 문 헌】

고정자 (2006). **새로보는 결혼과 가족,** 서울 : 형설출판사.

김기현 (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명선 (2000). **손자녀와 노인의 상호작용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탑골공원 노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문정 (2006).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경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 (2000).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과 직업 역할 몰입 유형에 따른 생활 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희 (2003). 중년기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복지감. **한경대학교 논문집, 35(12).**

김유경 (2000). **세대간의 유대관계와 노인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중심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애순 (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시그마프레스.

김태현 (1995). **노년학.** 서울:교문사.

김희숙 (1996). **두 자녀 아버지의 심리적 경험과 역할수행.**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하영 · 유안진 (1996). 아동이 지각한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사회적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4),** 279-293.

박경란 (1988). **노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 장남부부와의 관계 중심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영숙 (1998). **핵가족화에 따른 청소년의 조부모에 대한 태도 변화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의순 · 조병은 (1990). 청년기 손자녀가 지각한 조부모와의 유대감. **가족학논집, 2,** 28-62.

박충선 (1990).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배경미 (1988). **조부모역할에 관한 기초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동인 (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병선 (1995). **조모의 손자녀 대리 양육 수행과 만족도 연구 - 취업모 자녀를 둔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병숙 (1996). **노인연구.** 서울 : 교문사.

서혜영 (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미경 (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유안진 (198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이선자 (1989). **연령 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선주 (1990).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희경 · 조병은 (1995). 맞벌이 가족의 조모- 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6(1),** 211-224.

조선화 (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주현 (1993).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연구.

최정혜 (1991).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 박사학위논문.

최혜경 (1985).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경혜 · 송지은 (2001). 중년 남성의 건강에 가족 및 직업 특성이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1),** 51-73.

한경혜 (2004).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노년학 24(4),** 87-106.

홍길회 · 황정해 (2006). 자녀양육 스트레스 및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영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아동학회지, 27(3),** 301-317.

홍숙자 (1999). **노년학개론.** 서울 : 하우

황정해 · 백경임(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6(3),** 61-71.

황정해 (2006). 아버지됨(Fathering) 경험이 남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의미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43-60.

황철수 (2004). **가족레질리언스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혜영 (2005). **조모의 지원 및 조모-손자녀 관계가 아동의 정서 자능에 미치는 영향 -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狹野千壽 (1999). **탑골공원과 한국 할아버지 - 장소형성에 나타난 한국적 특성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Canfield. K (1992). *The 7 secrets of effective fathers.* Illinois :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Erikson, (1976) 외 저. 한성열 역(2000).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서울:학지사.

Ellen G. 저. 김세희 외 4인 역(1996).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 - 부모기의 6단계 -.**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Hannelore S. 저. 김선형 역(2005). **노년의 미학.** 경남대학교 출판부.

Judson, J. Older (1985). *Grandparents' Perception of Generativity in the Grandparent - Grandchildren Relationship.* Dissertation of Kansas State University.

Merriam S. 저. 허미화 역(1997).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양서원.

Quin, W. 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Spradley J. 저.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